

현대 가구제조현장에서 사용되는 가구용어 연구

문 선 옥¹, 송 호 정², 김 애 주³, 홍 승 현³, 박 경 연¹, 장 현 영¹, 조 숙 경^{†,4}

¹경상대학교 환경재료과학과, ²유한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과,
³강원대학교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⁴서일대학교 생활가구디자인학과

A Study on Furniture Terminology at Contemporary Furniture Manufacture Fields

Sun-Ok Moon¹, Ho-Jeong Song², Ae-Ju Kim³, Seung-Hyeon Hong³, Kyeong-Yeon Park¹,
Hyun-Young Jang¹, Sook-Kyung Cho^{†,4}

¹Environmental Materials Science/Institut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GNU, Jinju 660-701, Korea

²Department of Living Interior and Environment Design, Yuhan University, Bucheon 422-749, Korea

³Department of Forest Biomaterials Engineer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0-701, Korea

⁴Department of Living Furniture Design, Seoil University, Seoul 131-702, Korea

Abs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explore the formation of furniture terms with the name of furniture, furniture materials, tools, and machinery from eight furniture companies manufacturing their own different furniture item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terms can be abstracted as four thing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terminology that the furniture firms is are unified over 80 percent and has no problem on the communication among the companies. Especially office furniture all is using common words because the terms are almost fixed by an administration agreement relating to the Supply Administration. Second, the furniture terms being used at the fields are mixed with Korean, English, and Japanese, and this current state shows more at small businesses than at large businesses Third, the terms of foreign words, almost English, present 48 percent as 156 words among the total 325 terms. Japanese shows 6 percent as 21 terms but it tends to be handed down from mouth to mouth with inaccurate conditions. Finally, the formation of the terms are from the original words or English, from the combination of Korean and foreign words for convenience at the fields, and from being created as Korean newly in considering Korea's special situation.

Keywords: furniture, terminology, term, formation, field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11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국내 가구시장은 9조 4천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어려

움을 계기로 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중국시장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생산 기지를 중국에 두었던 기업들이 국내로 자리를 다시 옮기거나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 외에도 인터넷의 발달은 가구산업분야에 큰 영향을 미쳐 글로벌한 국내 가구기업의 탄생이 절실한 상황이다. 2007년 WFC (WORLD FURNITURE CONFEN-

2013년 3월 14일 접수; 2013년 4월 2일 수정; 2013년 4월 10일 게재확정

† 교신저자 : 조 숙 경 (kassel95@seoil.ac.kr)

DERATION)에 의하면 세계 총생산액의 76%를 차지하는 가구 선진국으로는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구산업의 글로벌화 조짐은 가구제조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의 앞선 기술과 원부자재의 수입으로 발생하는 현상 중의 하나가 한국어로 번역이 어렵거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원어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영어로 된 용어를 흔히 접할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남아있는 일본어 용어가 일부 존재한다. 한문에 근원을 둔 과거로부터 사용해 오던 용어가 있으며, 산업현장의 편리성에 의해 새로 생성되는 한국어가 있으나, 국어사전에는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명칭들의 혼재는 산업체 간의 업무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특히 학계와 산업계의 괴리감이 조성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8개의 현대가구를 생산하는 업체를 선정한 후 가구제조현장을 방문하여 사용되는 용어를 조사한다. 용어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토대로 외래어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가구관련 용어의 바람직한 생성 및 사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먼저 현대가구를 제조하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제한한다. 즉 전통가구나 공방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현대가구를 제작하는 산업체로 한정하며, 가정용 가구를 생산하는 기업 3곳과 현대 사무용 가구를 생산하는 기업 3곳, 그리고 아동용 가구 1곳, 부엌 가구 1곳을 선정하였다. 그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분야의 종류별 가구 명칭, 가구의 부분 명칭, 가구재료 명칭, 공구 및 기계에 관한 명칭 등을 조사하고, 외래어의 현황을 파악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인터넷과 가구관련 전문 서적을 토대로 각 분야별 명칭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각 명칭을 도출한다. 8개의 가구 기업을 선정한 후 가구제조현장을 방문하여 사전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사용되는 용어를 조사 및 보완하고, 중

복성 있는 용어를 선별하여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사전이나 가구관련 전문잡지, 저서, 인터넷을 통해 누락 된 부분이나 오류를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용어를 정리한다.

2. 가구제조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현황

2.1. 가구공장 현장 용어 수집

현대가구는 종류에 따라 크게 가정용, 사무용, 아동용, 부엌 가구로 나뉘며, 이러한 가구를 제작하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가구의 종류별 명칭, 가구의 부분을 지칭하는 명칭, 가구 재료에 관한 명칭, 가구 제작 시 필요한 공구 및 기계에 관한 명칭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용 가구에 대한 부분 명칭을 조사하기 위하여 가정용 가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장인가구, 파로마, 리바트사를 선정하였다. 사무용 가구에 대한 명칭과 공구 및 기계 명칭은 신일퍼니처, 퍼시스, 보루네오에서 조사하였다. 아동용 가구분야는 파랑새교구, 부엌 가구는 에넥스를 선정하였으며, 선정은 소·중·대형 가구 회사를 골고루 안배하였다. 조사방법은 먼저 가구 전문서적과 인터넷을 통하여 가구 회사에서 사용될 만한 용어를 사전조사하였으며, 이것을 각 업체 실무담당자를 만나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잘못 조사된 것이 있는지,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지, 누락된 용어가 있는지를 추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1차년도에 도출된 명칭은 총 650개이며, 그중에서 가정용 가구의 부분 명칭 35개와 사무용 가구의 공구 및 기계명칭 35개를 도출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가정용 가구의 부분 명칭 중에서 경첩은 힌지와 같이 쓰이며, 거울은 경과 반신경으로도 사용된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3개의 기업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사무용 가구의 공구 및 기계 명칭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명칭이 여러 개 나타났으나, 이것은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구나 기계일 경우이다. 신일퍼니처에서 사용하지 않는 락톱은 퍼시스에서는 사용하고, 보루네오에서는 밴드소로 사용되는데, 신일퍼니처에는 락톱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이다. 현대 가구제조

Table 1. Examples on research contents of furniture field terms (6 companies 2009)

가정용 가구의 부분 명칭				번호	사무용 가구의 공구 및 기계 명칭			
사전조사	장인가구	파로마	리바트		사전조사	신일 퍼니처	퍼시스	보루네오
손잡이	○	○	○	1	해머	합마	×	망치
벡타이걸이	타이걸이	타이걸이	타이벨트걸이	2	톱	도스끼틀 (얇은 톱을 지칭)	×	○
경첩	경첩, 힌지	경첩, 힌지	경첩	3	전기드릴	보루방	×	○
선반 꽃음축	목다보, 이동선반다보	이동선반다보	다보	4	그라인터	○	○	○
손잡이볼트	○	○	피스캡	5	끌	노미(日)	×	○
바지걸이	○	인출식 바지걸이	인출식 바지걸이	6	캘리퍼스자	×	버니어 캘리퍼스자	노기스
천판	○	○	○	7	포켓 자	마끼자 (줄자, 日)	×	줄자
측판	○	○	○	8	드릴링머신	×	○	보루방
지판	○	○	○	9	밀링머신	×	○	밀링
선반	고정선반, 이동선반	○	중판	10	드릴프레스	×	드릴프레스	단축보링기
아테	자석아테	자석아테	마그네틱캐치 플레이트	11	라우터	루터	×	루타
망레일	망서랍 레일	바구니레일	망서랍 레일	12	로꾸로	○	×	○
칸막이	○	○	사절	13	자동대패	×	○	수압포
거울	경	거울, 경	반신경	14	자동보링기	보링기	×	260축 보링기
뒤판	○	○	○	15	테노나	×	○	○
쌍자석	자석	자석 (日빠찌링)	마그네틱캐치	16	유압프레스	×	○	프레스
서랍	○	목서랍	목서랍	17	로우터	×	○	핸드루터
바구니	망서랍	망 서랍, 바구니	망서랍	18	둥근톱	×	○	횡절기
문짝	도어, 문짝	문짝, 도어	도어	19	띠톱	×	○	밴드소
케도판	이마목	이마목, 보조목	가림판	20	엣지밴더	×	○	○
경고정대	경고리	○	경고리	21	자동 엣지 밴딩기	주걱-헤라 (日)	○	×
결레반이	○	○	○	22	자동 NC 보링기 6M	송곳(드릴날)- 가리(日)	○	×
공기망	○	공기망, 환풍망	환기구	23	자동 NC 보링기 5M	큰직각자-오오 가네(日)	○	×
머리판	머리판, 헤드	머리판, 헤드보드	헤드보드	24	자동 NC 재단기	나사돌리개, 드라이버-네지 미와시(日)	○	×
매트리스	○	○	○	25	자동 더블 엣지 밴딩기	니퍼-닛빠(日)	○	더블 엣지 밴드
발판	발판, 풋보드	발판, 풋보드	풋보드	26	곡면 엣지 밴딩기	금긋개-게비끼(日)	○	라운드 엣지 밴드
연결 철물	○	○	○	27	더블 엔드 테노나	인두, 흡손-고데(日)	○	×

후면에 계속

가정용 가구의 부분 명칭				번호	사무용 가구의 공구 및 기계 명칭			
사전조사	장인가구	파로마	리바트		사전조사	신일 퍼니처	퍼시스	보루네오
바닥판	깔판	깔판	평상바닥판	28	프레스 1단	×	○	콜드 프레스
다리	발통	발통	발통	29	루우터	×	○	루터
상판	○	○	○	30	횡절기	×	○	횡절기
좌판	○	○	○	31	수평보링기	×	○	○
등판	○	○	○	32	횡지 보링기	×	○	경첩 보링기
머리받이	머리받이,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	33	자동재단기	×	○	○
팔걸이	○	○	○	34	롤코타 (스프레다)	×	○	스프레다
레일	○	○	○	35	CNC 포인트	×	CNC	CNC

(○ : 사전조사와 같음. × :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음.)

Table 2. Unification of terms categorized by home furniture standard

번호	1차년도 명칭(2009년)	2차년도 명칭(2010)	번호	1차년도 명칭(2009년)	2차년도 명칭(2010)
1	8자 장롱	장롱	5	싱글침대	침대
	9자 장롱			수퍼싱글침대	
	10자 장롱			더블침대	
	11자 장롱			퀵침대	
12자 장롱	강침대				
2	2인용 식탁	식탁	6	1단 거실장	거실장
	4인용 식탁			2단 거실장	
	6인용 식탁				
	8인용 식탁				
3	1인용 소파	소파	7	400책장	책장
	2인용 소파			800책장	
	3인용 소파			900책장	
	4인용 소파			1200책장	
4	1단 서랍장	서랍장	8	9자 붙박이 장롱	붙박이 장롱
	2단 서랍장			10자 붙박이 장롱	
	3단 서랍장				
	4단 서랍장				
	5단 서랍장				
	6단 서랍장			12자 붙박이 장롱	

현장 용어를 조사한다는 기준측면에서 볼 때, 알고 있으며 보편화되어 있는 명칭일지라도 각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조사하였다.

2.2. 중복성 있는 용어 정리

조사된 총 650개의 명칭 중 아래와 같이 규격에 따라 분류되거나 회사의 임의로 붙여진 제품 명칭의 경우는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여 정리하였다. 즉, Table 2의 장롱과 같이 8자, 9자,

Table 3. Furniture terms called differently by each company

번호	1차년도 명칭(2009년)	2차년도 명칭(2010년)	번호	1차년도 명칭(2009년)	2차년도 명칭(2010년)	
1	기본 책상	책상	2	서랍옷장 2인용	옷장	
	우레탄 마름모형 책상			서랍옷장 3인용		
	둥근 책상			서랍옷장 4인용		
	1인용 책상			서랍옷장 6인용		
	사각책상			벤자민옷장		
	엔젤(P) 2인용 책상			사각스툴		스툴
	엔젤(P) 낮은 책상			윈스툴		
메종 책상						

10자, 11자, 12자처럼 구분된 명칭을 “장롱”으로, 싱글침대, 수퍼싱글침대, 더블침대, 퀸침대, 킹침대는 “침대”로 통일하였다.

또한 기본 책상, 우레탄 마름모형 책상, 둥근 책상, 1인용 책상과 같이 회사마다 제품에 붙여진 이름이 다르나 ‘책상’으로 끝나는 용어는 ‘책상’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규격에 의해 분류되거나 회사고유의 이름이 붙여진 옷장도 ‘옷장’으로 통일하였다(Table 3).

2.3. 최종 현장 용어 도출

2009년도에 실시한 현장용어 조사 자료를 토대로 중복성 있는 용어는 하나로 묶어 정리하고, Table 4와 같이 총 325개의 최종현장 용어를 도출하였다. 영어 용어로 분류한 것은 A/V스탠드처럼 표기자체가 영어로 시작한 명칭에 제한하였다. 드레스룸이나 라미네이트처럼 영어이나 영어로 표기되지 않고 한글 발음으로 표기되는 것은 한글 명칭으로 분류시켜 ‘ㄱ, ㄴ, ㄷ’ 순서로 정리하였다. 일어는 일어발음을 한글로 표기된 것을 따로 분류하였으며, 총 21개로 6%정도를 차지한다. 영어표기는 18개, 한글로 표기되어도 원어발음 그대로 사용되는 것은 103개로 총 121개가 외래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디럭스형 책상, 미니 옷장, 시니어 가구와 같이 한글과 영어가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은 35개이다. 따라서 외래어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모두 156개로 전체 중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3. 현대 가구제조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생성

현대가구를 제조하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에 근거하여 새롭게 탄생된다. 이러한 용어는 시대가 흐르면서 변화되는데, 없어지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된다. 또한 새롭게 생성되는 용어도 있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용어는 국문학자나 가구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토론없이 한 회사에서 생성되어 점차 다른 회사로 퍼져나가는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구관련 종사자들의 끝없는 재교육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대학에 종사하는 교수들은 사회에 배출되는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졸업생들이 곧바로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닌 재교육을 1년간 시켜야만 하는 괴리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와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나타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산학유대의 결여에서 온다. 즉, 대학의 가구 디자인개발 수업은 산업체의 신제품 개발과 같은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교수 또한 끝없는 프로젝트의 진행으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접하고, 그것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계와 산업계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가구관련 용어의 생성과정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원부자재나 가구의 수입으로 인해 관련 명칭이 원어 그대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로 캐스터 (castor), 캐치(catch), 하이글로시(high glossy) 등이

Table 4. The finality on field terms of contemporary furniture

순서	2차년도(2010년) 최종도출 명칭	개수
ㄱ	가열성형, 가죽, 각골기, 강연대, 개비, 거실장, 거울, 격쇠(꺾쇠), 걸레받이, 걸상, 경고정대, 경첩, 고무망치, 곡목 성형, 곡면 엿지 밴딩기, 공구 연마기, 공기망(공기통), 공기해머, 광택기(버핑기), 교구장, 교탁, 퀘도판, 그루개, 금, 끌, 기둥, 기포성형	27
ㄴ	나사, 나사돌리개(드라이버), 납폼가구, 너트, 넉다운 가구, 넥타이걸이, 니퍼	7
ㄷ	다리(발통), 다용도 의자, 단조, 대리석, 대패, 펌프, 독립형 책상, 폰피, 돌침대, 둥근톱, 둥근 머리, 나사못, 뒤판, 드레스룸, 드롭해머, 드릴, 등받이, 등탁자, 디럭스형 책상, 띠톱기계(전기띠톱)	19
ㄹ	라미네이트(래미네이트), 라운지용 의자, 라텍스, 라픽스, 락카(래커), 래치, 러브시트, 러브테이블, 레벨러, 롤러 코터, 로우터기계 → 루터기계, 루버, 리프트도어	13
ㅁ	마그네틱캐치, 망레일, 망치, 짜맞춤기법, 매트리스, 머리판, 매쉬의자, 멜라민, 멤브레인, 면치기, 모양지, 모던 스타일, 목선반, 목업, 목형소파, 몰딩, 무늬목, 문짝, 미니옷장, 미니픽스, 미닫이 장롱, 밀링머신	22
ㅂ	바구니, 바지걸이, 발판, 베드스툴, 밴딩기, 벨트샌더, 보링기(cnc, 장부기), 보조책상(사이드 책상), 보조캐스터, 볼트, 부자재, 분리수거함, 붙박이 장롱, 빌트인 가구	14
ㅅ	사물함, 사이드 거실장, 사출성형, 사포, 상감, 상부장, 상판(천판), 상판, 샌더, 셀로우, 서랍, 서랍레일, 서랍장, 선반 꽃음축, 성형엿지, 소바리, 소파, 소호가구, 손잡이, 손잡이 볼트, 송곳, 수강용 탁자, 수대, 수동재단기, 수직 보링기, 수평 보링기, 스테인, 스테인리스 스틸, 스톨(간이의자), 스프링 해머, 시니어 가구, 시리즈 가구, 시방서, 시스템 가구, 식탁, 실침대, 실톱, 실협대, 쌓는 의자	39
ㅇ	아동용 가구, 아웃도어 퍼니처, 아트 월, 악기장, 안락의자, 알루미늄, 압채어, 압착기, 압출덕트, 앞판, 앵글, 예 스닉 가구, 엿지, 여닫이, 여닫이 장롱, 연결의자, 연삭기(그라인더), 열람대, 염색무늬목, 영역 교구장, 오토판, 오픈 포어, 오픈형 드레스룸, 옷걸이(행거), 옷장, 옷칠, 와이드 체스트, 왜건, 외장재, 우레탄도장, 원목의자, 유리, 월 패널, 유아용 가구, 유아프레스기, 은, 응접의자, 응접탁자, 의자, 이단 침대, 이동식 서가, 이동식 서랍장, 이불장, 이중 바 게이지, 이지 체어, 이중침대, 익스텐션형 거실장, 인두, 인조무늬목	49
ㅈ	자동엿지 밴딩기, 자동 보링기, 자동 재단기, 자동대패, 자료정리대, 자물쇠, 장롱, 장식장, 전기드릴, 전선캡, 전신 거울, 접는 의자, 접이식도어, 재단기, 조각, 조절발통, 조립식 가구, 좌판, 좌식 의자, 좌식 책상, 주걱, 주니어 가구, 주방가구, 줄자, 중간서랍, 중심봉, 중역용 가구, 중기해머, 지그소(직소), 지판, 직각자, 직각클램프, 직선자, 진공성형, 집성목, 집진기	36
ㅊ	책꽂이, 책상, 책장, 천연무늬목, 캐스터필드, 측판, 칠판, 침대	8
ㅋ	카우치 → 코치, 칸막이(파티션), 캐노피 침대, 캐비닛, 캐스터(볼 캐스터), 커튼 코터, 컴퓨터 책상, 캐치, 코너의자, 코너장, 코너형 소파, 코아판넬, 콘솔, 쿠션, 크레덴자, 클램프, 클로즈포어, 키큰장	18
ㅌ	타커(탁), 테이블(탁자), 텍시도, 톱, 트리밍기, 특판가구, 킬링	7
ㅍ	파우더 룸, 팔걸이, 팔걸이 의자, 펜치, 포름알데히드, 포밍, 포밍기, 포스트모던 스타일, 프레스, 프로토 타입, 플러시 판넬, 플랩장, 필러스테인	13
ㅎ	하부서랍(하단서랍), 하부장, 하이 글로시, 합판, 핸드 로우터, 협탁(등탁자), 호부기, 화장대, 후드, 훈증무늬목, 흔들의자, 흠침대, 힌지 로우터, 힌지 보링기	14
영어	AV스탠드, AIR타카, AIR 드라이버, CD 장, CNC, DIY 가구, E0 등급, HDF (고밀도 섬유판), HPM, L형 책상, LPM, MDF, OA 칸막이, PB (파티클보드), PVC, PVC 엿지, UV 도장, Wall bed	18
일어	가꾸목, 가다, 고무재, 기다시, 기도리, 기스, 나라시, 노미, 네지, 니스, 다보, 테스리, 로그로, 마끼자, 사이, 소바리, 스킨다, 야스리, 오야다스, 우라(うら), 키립빠시(きりっぱし)	21
	합 계	325

있다. 캐스터는 바퀴로 번역될 수 있으나, 대부분 바퀴보다는 캐스터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영어를 사용하면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세련되어 보이거나 교양 있어 보인다는 올바른지 못한 편견에서 시작된다. 캐치나 하이글로시는 마땅한 번역용어가 없어 원어 그대로 사용되는데, 이 또한 바꾸려는

부단한 노력이 배제된 편리성에 근거한다. 하드웨어는 대부분 질적으로 우수한 독일이나 미국, 이탈리아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각국의 원어보다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 명칭으로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는 국내의 하드웨어 기술이 월등하게 앞서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외국어와 한국어를 결합시켜 생성된 명칭으로 서랍 레일(rail), 시스템(system) 가구, 접이식 도어(door) 등이 있다. 한국어로 번역이 어려운 외래어와 한국어를 결합시켜 만들어진 이러한 용어는 원부자재나 가구의 수입 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편의에 의하여 서서히 생성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한국어로 만들어진 명칭으로 영역교구장, 조립식 가구, 키큰장 등이 있다. 이러한 용어는 국외와 다른 국내 제조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생성되는 용어로 국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영역교구장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사용되는 수납장으로 아동들의 학습이나 놀이를 영역별로 나누워 놓은 것에 착안하여 거기에 사용되는 교구를 수납하는 장을 말한다. 또한 키큰장은 장롱의 높이가 천정 끝까지 닿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순수 우리말이며, 현장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모든 산업이 글로벌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 용어의 사용은 사업상 편리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는 우리 가구기술과 고유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체성이 결여된 가구산업의 미래를 가져올 뿐이다. 우리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한국어 용어로 된 부자재 및 가구를 전 세계에 수출함으로써 가구산업은 물론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편리성을 앞세워 용어까지도 국적을 알 수 없는 가구산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하에 한국어 명칭의 생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이 이어져야 하겠다.

4. 결 론

본 연구는 현대가구 제조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사전조사 및 현장방문 그리고 인터뷰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분야별 가구회사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용어의 현황을 파악하고, 용어의 생성과정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가구분야별에 관계된 회사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은 80% 이상이 통일되어 있어 업체 간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특히 사무용가구는 조달청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편의상 대부분의 용어가 정해져있어 모두 공통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동용 가구의 경우는 조달청에 납품하는 교구용과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가정용으로 구분되어 특히 종류별 명칭에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둘째, 현장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 한글, 일어, 영어가 혼재되어 있어, 현장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다소 어렵고,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 한 개의 명칭에 관한 다른 여러 가지 나라의 말을 배워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셋째, 외래어로 사용되는 명칭은 총 325개 중에서 156개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영어이다. 일어난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시작되어 뜻이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전으로 전해 온 경향이 강하다. 조사결과 일어용어는 21개로 6%를 차지하며, 대부분 문서화되지 않는 구어체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목공부나 미싱부처럼 노동이 중심이 되는 제조부서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넷째, 가구관련 용어의 생성과정은 원부자재나 가구의 수입으로 원어나 영어명칭이 그대로 유입되는 경우, 현장의 편리성으로 한국어와 외국어가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경우,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한국어로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이 현대 가구제조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생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가구관련 용어정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국내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실용가구용어 사전이 탄생되는데 기여함은 물론 가구분야의 산학연계 분위기 조성에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사 사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2-G00013).

참 고 문 헌

- 강신우. 2010. 가구디자인. 미진사: 169.
 조숙경. 2012. 가구재료학. 기문당: 57-63.

- 조숙경. 2010. 장롱의 부분 명칭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21(2): 202-204.
- 조숙경. 2010. 현대 가정용 가구의 종류별 명칭 연구. 한국 가구학회지 21(5): 434-436.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2. 2011년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품목기획최종보고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28-229.